

2017년 5월 26일, 성산읍 오조리 오조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  
현순덕(여, 1932년생, 성산읍 오조리)

- 줄거리: 밤에 유채 걷으러 갔다가 본 도깨빗불 이야기이다.

**[제보자]** 저 먼 밧디 강 유체를 비언 이제 비가 오람직 허난. 그땐 가빠가 잇이카 멍석 뒤언 오난. 경애 하르바님이.

“야 날 궂인다. 경 어둑허걸랑 지엉 오라불라. 지엉 오라불라.”

이젠 경엔 밥허고 경일허고 경자가 이제 나 떨어갔어. 이젠 그 맹텅이에, 유첼 두드린 걸 지어 아전 오난, 이제 애기자국 물 잊지 안혀냐? 그디 오란 저작 저바당므로 동산으로, 무시게 번뜩현 게 사발 만한 한 사발이 아니라 낭푼이라.

나 도체비 경 행 두 번 봐저. 펴딱펴딱 불 번직허난, 아이덜은 짐은 꿰영 허는디, 짐을 훈 말 썩 지는 아이덜이 옆뎅이 몸빼 바짝 심언.

“어멍 저거 무신 불이꽈? 무신 불이꽈?”

헤연, 도체비엔 허민 아이덜이 더 놀레카부덴.

“거 무시거 벨 털어지젣.”

“무신 벨이 정 큐네겐? 낭푼이만 허우다. 낭푼만 허우다.”

아메도 관대로 허는 낭푼이라 요만한 것에 허단, 이제 송리산에 동산 잊지 안혀냐? 애기자국에 그디 오건 또 파작착 짐수막에서 봐난 게 잇어.

아이고, 경 행 그디서 뜸이 쫀쫀 험 저 백문동산 그 쉬는디 잇잖여. 그 돌에 그디 오란 쉬어네. 아이고 제우 숨 쉬노렌 허난, 요디 누게 어멍이 쉬 안 들어오나네 쉬 일러비언 나오랏수덴 허멍, 백문동산에 가네 그 어른?라.

“그레 가지맙서. 도체비 잇언 파지직 착 햅수다.”

허멍, 나 그추룩 도체비 두 번 봐낫덴 허난.

- 핵심어 : 애기자국, 짐수막, 바당므로 동산, 낭푼만 헌 불, 백문동산, 쉬, 도체비, 도깨비, 송리산